

광주 수피아여고, 13·14회 동문 산수연 성료



광주 수피아여자고등학교 졸업 13회·14회 동문 산수연(80세) 행사가 지난달 3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층상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번 행사는 수피아 후배 동문들이 산수연을 맞은 선배 동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후배 동문들의 후원과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

서 모인 선후배 동문과 재직 교사 등 130여 명이 함께했다.

1부에서는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사 예배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축하식과 꽃다발 및 기념선물 전달, 동문들의 시와 노래, 연주 등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 청년정책스테이션 개최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은 최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청년정책스테이션'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취업난과 구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고용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력 프로그램을

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 청년정책스테이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광주시 청년지원정책 등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상담 부스를 운영해 참여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직접 상담받고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다민 기자 kdi@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재개원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8일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종합병원에서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재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에 재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은 대대적인 기능 보강 공사를 통해 산모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좌욕실과 마사지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며 기존 16실이었던 산모실을 18실로 늘려 더 많은 임신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신부 전용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접근성 향상에도 공을 들였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 개선 활동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서생현)은 지난 29일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담양군과 담양경찰서, 담양군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청소년지도위원회의회 등 7개 유

관기관이 참여해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담양읍 중앙로 일대 편의점, PC방, 숙박업소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업주들의 청소년보호 인식강화를 도모했다. /김다민 기자 kdi@

2026년도 우리고장 위대한 대한인

‘2월의 인물’ 의병장 기삼연 선생



호남이 다시 일어설 때마다 가장 앞에 섰던 의병장, 기삼연(사진·1851~1908) 선생이 '2026년도 우리고장 위대한 대한인' 2월의 인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광주지방보훈청이 추진하는 '2026년 우리고장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출신 보존 인물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지역

세대에 보존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 선생은 1851년 장성군에서 태어나 호남의 대표적 성리학자 기정진 문하에서 학문을 닦으며 일찍이 경세외식과 병법을 함께 익혔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지식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 내려지자 그는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세에 맞선 항거에 나섰다. 이후 1907년, 일제가 군대를 해산시키자 영광 수련산에서 다시 봉기해 의병을 규합했고, 법성포를 탈환하며 호남 전역에 항일의 불씨를 지폈다. 기 선생이 주도한 '호남창의회맹소'는 고창 문수암 전투, 영광 법성포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잇따라 전과를 올렸다.

1909년 '남한폭도대토벌작전'에 의해 호남 의병은 이로써 조직적으로 와해됐지만, 그들이 지켜낸 저항의 정신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정부는 기삼연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화순전남대병원, 헌혈 운동 동참



화순전남대병원이 지난 28일 병원 주차장 입구에 배치된 헌혈 차량에서 '2026년 제1차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빠뽀 좋아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	10 TV쇼 진품명품(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은애하는 도적남아(재)	15 건강의 재구성 셀록(재)	00 보석아내 건강 수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쌍둥이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네모세모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이맘때(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캡슐세이비(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탑클래스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베베핀 30 첫 번째 남자(재)	00 SBS 오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00 생방송 투데이 50 닥터 365 55 시집이 좋다(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35 시사타치! 따따부따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오은영 리포트 가족지옥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00 말자쇼	4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0 아니 근데 진짜!	
[11]	35 인생이 영화(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더 로직(재)		40 닥터 365 45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15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MBC 뉴스 25 50 실화탐사대 스페셜	45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 <프로방스 아트 로드 사람의 도시, 니스·생폴드방스> 07:00 슈퍼월스 슈퍼콤보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댕동댕 댕동댕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20 자이언트 팽TV 09:40 PD로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랙스 16:10 댕동댕 댕동댕(재) 16:30 한글용사 아이야(재) 17:00 페파 피그 17:10 메카 빌드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 17:50 자이언트 팽TV(재) 18:10 EBS 뉴스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20 고향민국 19:50 손주 부모 세게일주 - 할매가 간다! 20:40 세계테마기행 <말레이시아 별난 체류기 -여기서 살아볼래? 쿠칭> 21:35 한국기행 <한 우물 전성시대 1부 한평생, 자개와 온장도> 21:55 EBS 다큐프라임 22:50 세계 극한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일(음 12월 15일 丁未) ☎ 010-9790-8237	
	48년생 마음만 먹으면 흉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느니라. 60년생 물고기 트이면서 연쇄적 작용을 일으키는 기쁨이 보인다. 72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잡자고 있는 것이 백번 낫다. 84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두어야 뒤탈이 없으리라. 96년생 어떻게 하든지 무리함이 없는 날이다. 08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4, 98	
	37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49년생 과감하게 펼쳐버리고 확실히 벗어나야만 한다. 61년생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73년생 알고도 속아 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85년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97년생 우선 순위 기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23, 75	
	38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때 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50년생 난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슬기를 모은다면 관철한다. 62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74년생 미리 정보의 수집부터 해둬야 한다. 86년생 문제점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98년생 이면의 처치와 환경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7, 99	
	39년생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운세이다. 51년생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변수가 다채롭게 작용할 수 있겠다. 63년생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니 지켜 보고만 있으면 된다. 75년생 견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87년생 제반사에 흥왕의 빛이 역력하다. 99년생 확실히 어필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2, 67	
	40년생 결모습만 달리하고 있을 뿐 내면은 차이가 없다. 52년생 뻔히 다 알면서도 뉘설려 들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라. 64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 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76년생 추진하던 일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답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88년생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00년생 각별히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04, 52	
	41년생 덕이 높은 이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53년생 우연히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가지는 않는다. 65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77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89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01년생 더뎌서 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행운의 숫자 : 03, 89	

	42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54년생 한 곳으로 집중 되어야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66년생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78년생 수상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90년생 앞찬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02년생 세밀하게 재검토 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3, 85	
	43년생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르다. 55년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며 편하다. 67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79년생 듣기에 좋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정황이다. 91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3년생 굳이 앞서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5, 94	
	44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56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68년생 그 어느 것으로 미진할 것이니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다. 80년생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92년생 상대방에게 공히 생산적이라면 실익이 있다. 04년생 지혜가 있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 71	
	45년생 진행 중인 것에만 신경 쓰며 집중력을 높인다. 57년생 지칠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69년생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 81년생 가로 막는 장애물이 보이거든 우회하는 것이 용이하다. 93년생 생애에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05년생 약전하는 김복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6, 74	
	46년생 끈질긴 인내와 빈틈없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58년생 상당한 수익이 주어지면서 풍요로움을 더 할 것이니라. 70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82년생 사소한 근심은 버려도 된다. 94년생 웃음이 얼굴에 가득할 것이다. 06년생 확실히 변화시켜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5	
	47년생 수단은 연쇄적인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59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71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머지않아 해답을 얻는다. 83년생 승안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95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07년생 태평스러운 환경에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96	